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B 한일 롱숏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li>▪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li>▪ 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한국과 일본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파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모집[판매]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7년 09월 1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bam.co.kr">www.kbam.co.kr</a> )의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S	C	C-E	C-P
가입자격		가입제한없음	인터넷가입자	펀드한정 판매사의 인터넷시스템 가입자	가입제한없음	인터넷가입자	연금지속계좌 가입자
선·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500	0.250	0.250	1.400	0.500	0.700
	운용 등	0.760(집합투자업자보수: 0.700, 신탁업자보수: 0.04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기타	-					
	합성 총보수·비용	1.327	1.073	1.053	2.231	1.323	1.515
주석사항		※ 상기 종류 외 C2, C3, C4, C-F, C-F2, C-W 및 C-Pe 클래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 클래스의 경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 투자비용에 따라 나눈 값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수는 보수계산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지급합니다.					
매입 방법 (자금납입일 기준)		15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환매청구일 기준)		15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 지급 15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에 대금 지급	
기준가		1,000좌당 1,000원 ※ 산정방법: 펀드순자산/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 * 1,000(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한일 주식간의 통신통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투자 및 국내 채권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상세설명
KB 한일 통신통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90%이상	- 한일간 주식 통신통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및 국내 채권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음 - 국내외주식 70%이하, 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A-이상) 50%미만, 파생상품(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투자 가능

※ 위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 KIS 국고채 1~2년 지수: KIS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채권지수를 이용하여 KB자산운용(주)에서 자체 생성한 채권지수로서 만기가 1년~2년 남은 국채의 지수를 이용해 생성한 지수
- KOSPI 지수: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
- NIKKEI225지수: 일본경제신문사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한일 통신통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한일 통신통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투자전략
(1) 투자전략: 한일 주식간 통신통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및 국내채권 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일본 통신통 주식의 선정 및 저평가 장기투자 주식 군 선정은 일본 현지 자산운용회사인 DIAM Co., LTD.(이하 “DIAM”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운용합니다. ※ KB자산운용은 일본주식 부분 운용에 대해 일본 현지의 자산운용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KB자산운용 또는 자문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자문회사는 다른 자문회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적절한 자문회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KB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은 당초의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지 않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Long  
(매수)

▪ Long(매수)

-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매수(저평가, 성장가능성 높은 종목 등)
- 주가 상승시 이익, 주가 하락시 손실

Short  
(매도)

▪ Short(매도)전략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차입매도 (고평가,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종목 등)
- 주가 상승시 손실, 주가 하락시 이익

※ 상기 예시는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만을 적용하고 환율효과는 제외한 예시 자료입니다.

1) 주식투자전략: 기업의 가치평가 및 거시경제 분석을 통한 상대적인 업황 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롱숏 전략을 수행합니다. 추가적인 수익 획득을 위하여 저평가 주식매수 및 주가지수 선물 매도 등을 병행합니다. 일본 등 해외 주식의 숏(매도)전략은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주식스왑 등) 거래를 활용 수 있습니다.

(가) 페어 트레이딩 전략: 한국과 일본의 주식 중에서 또는 각 국가내의 개별 주식 중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움직이는 두 종목의 주가가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

(나) 롱숏전략: 한국과 일본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하여 주가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롱전략, 숏전략 중 어느 한쪽 전략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전략에서 발생한 손실보다 크면 이익 발생

(다) 변동성 관리를 통한 안정적 이익 추구

- 순 주식 편입비율을 10%~3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동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일정기간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음
- 총 주식 편입비율(Gross Exposure)를 30%~130%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동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일정기간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음

(라) 추가 알파 전략

- 리서치에 기반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저평가 주식 매수
- 한국과 일본의 저평가 주식 매수와 병행하여 각국의 주가지수선물 매도 또는 주가지수선물매도 비중 조절 등을 통한 추가수익 획득 추구
-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외상장 ETF 등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 추구

(마)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주식스왑 등) 거래

- 일본 등 해외 주식의 숏(매도)전략은 거래의 안정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물차입매도 또는 주식스왑거래 중 결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선정

2) 채권투자전략

(가) 유동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국내 국공채, 특수채 및 신용등급 AA-이상의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우량 회사채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나) 채권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비교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

3) 환헤지 전략

(가) 기본적으로 일본주식 투자에 따른 순 주식 편입비율(Net Exposure)이 10%를 초과할 경우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예정임

(나) 환헤지는 원/엔 통화선물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수행할 계획이나, 거래단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환헤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순 주식편입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실행할 수도 있음

※ 비교지수: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3. 운용전문인력

(2017년 09월 05일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펀드 수	자산규모
강은표	1985년	책임	-	-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준일: 2017년 02월 14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33%	0.40%	7.65%	-	-
비교지수	5.37%	-0.07%	5.47%	-	-

※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손실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한국 및 일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해당 통화관련 선물 및 선물환 등을 활용하여 헤지할 예정이나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부문에의 투자에 있어서 롱숏(Long Short)전략을 주된 투자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과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전략 수행에 따른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주식 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률과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일 주식간의 롱숏전략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KOSPI지수 및 NIKKEI225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하는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 및 기타 차익거래 등의 알파 추구전략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과 크게 상이한 운용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가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일본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외국 국가시장의 증권은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에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위험관리

### - 환위험 관리 전략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고 모두투자신탁에서 외화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환헤지 방법	- KB 한일 롱숏 증권 모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일본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일본 엔화의 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엔 관련 통화선물 및 선물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부분적인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반대로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최소 70%, 최대 100% 내외
환헤지 비용	-

주1)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2) 투자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로 세액공제 효과)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 C 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이상 경과시 C2 클래스→C3 클래스→C4 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

\*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 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http://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http://www.kbam.co.kr))